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20일 첫삽... 2028년 상반기 개장

중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 시공사 선정

광주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가 첫 삽을 뜬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현대광주에 따르면 최근 중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20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린다. 2027년 말 완공,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된다.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더현대광주는 연면적 27만2955㎡,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 3만2364㎡(9790평) 대지에 연면적 27만2955㎡(8만2569평), 지하 6층·지상 8층 영업면적 10만890㎡(3만평) 규모로 '더현대 서울' 보다 1.45배 크다.

지난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 1월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뮐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 현지법인인 더현대광주가 설립됐고 건축·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월18일 건축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착공을 알리는 부지 내 공사가림막은 광주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된다.

더현대광주가 완공되면 광주의 랜드마크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심가를 연상케 하는 '딕셔리 스트리트'로 꾸며지고 지상 1층부터 천장까지 60m를 관통하는 대형 중앙보이드 공간을 통해 개방감을 선사하고 2층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플로팅 가든' 두곳이 조성돼 건축물 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3~5층은 수직 조경과 다양한 콘텐츠, 예술적 조형물이 어우러지고 에스컬레이터는 더현대 광주의 대표적 포토명소로 활용된다. 상업시설 최초로 대규모 실내 식물원을 도입해 도심 속 휴식공간(리테일 테라피)을 제공하고 예술·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400평 규모 유리천장을 통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확대했다. 지하는 세계적인 맛의 거리와 호남 맛집, 복합한 전통시장까지 느낄 수 있도록 상생마당으로 구상되고 있다.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즈니스투어에서 전방·일신방직터에 조성되는 '더현대광주' 건축 디자인이 공개되고 있다. '더현대광주'는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카상을 수상한 건축가 헤르조그&드 뮐롱이 설계한다.

더현대광주 관계자는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할 때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며 "광주의 고유문화와 콘텐츠, 미

라기술이 융합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물에 설계한 만큼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농어촌공사,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 민간 교육 마무리 자체 개발 'K-HAS CS' 무상교육으로 민관 상생협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사용자 81명을 대상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 프로그램(K-HAS CS)' 교육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계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하천으로 모이는 물의 양을 분석하는 수문분석과, 물의 흐름 속도와 높이를 계산하는 수리해석 기능을 지원하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HAS CS는 홍수량 산정과 저수지 안정성 분석 등 치수(治水) 기능, 유입량·필요 수량 산정과 물 수지 분석을 지원하는 이수(利水) 기능, 배수 개선 사업지구 내 시설물 규모 검토를

위한 수리(水利) 기능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사는 프로그램 배포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술자들이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과 설계 실무 적용 방법을 비롯해 새로 추가된 '기후변화 영향 반영 지침'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뒤 미래 기후 시나리오 적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예상할 농어촌공사 기반계획처장은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응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공사의 기술력을 민간에 적극 공유해 현장의 기후 적응 역량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시, 첨단기술 융합 'K-방위산업' 키운다

'K-방산 광주혁신포럼' 개최... 시-지원기관 5곳,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통관에서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열어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며, 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K-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추가 지정, 부품 국산화·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수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 기반을 갖춘 지자체가 방위산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가진 기술 기반시설(인프라)과 산업 기반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광주 방위산업 육성방향'(광주테크노파크),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위사업청), '고출력 레이저 방

산 적용 방안'(LIG넥스원)을 주제로 관련 기관의 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육군 전투실험 프로그램 소개, 지상 MRO(유지·보수·운영) 참여방안 논의, 국방반도체 기술 토론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기술원, 광주미래모빌리티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기업 지원, 사업화 등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유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모 추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는 2013년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지역 기업의 방산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원했다"며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만큼 광주시도 지역 기업들이 방산 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인 기자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인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토·일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코스는 ▲14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도립사 ▲15일 강진·보성·강진만생태공원과 울포해수욕장 ▲21일 순천·드라마세트장과 오천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 소쇄원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코스는 반려견과 함께 남도의 자연과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이다. 왕복 교통비,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

전남도,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남도한바퀴 특별코스 운영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첫 선... 1박2일 남도여행도

된 5만 원의 합리적 요금으로 운영된다.

1박 2일 여행상품은 광주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산이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전남 동·서부권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11월 15일, 22일, 29일과 12월 6일, 13일, 총 5회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왕복 우등버스비 식사(4식), 관광지 입장료, 숙박비(2인 1실)가 모두 포함된 21만 9천 원이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를 1박 2일 일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특별코스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일상 속 여가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남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년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도한바퀴를 통해 계절마다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일 기자



세부 운영 일정과 예약은 버스한바퀴 공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취업자, 광주 2만6000명 늘고 전남 3000명 줄었다

10월 광주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하고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주시 고용률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6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2000명, 6.6%), 전기·운수·통신·금융(6000명, 7.2%), 건설업

(2000명, 2.3%) 등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4000명, -20.3%) 등에서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3%로 2.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10월 전남도 고용률은 66.2%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10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1000명, 3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000

명, 3.5%), 광공업(4000명, 4.1%)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2만7000명, -12.6%), 도소매·숙박·음식점업(-7000명, -3.6%), 건설업(-6000명, -7.3%)에서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1.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